

추만 정지운의 「천명도」 분석

- “生物”과 “命物”, 그리고 “天人一體” -

강경현*

〈차 례〉

- 들어가는 말
- 추만 「천명도」의 도상 이해
- 추만 「천명도」에 반영된 하늘과 인간의 관계
- 나오는 말

[국문초록]

추만 정지운의 「천명도」는 16세기 조선의 학계에서 천명을 주제로 그려진 「천명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작성된다. 추만은理가 인간과 만물에性으로 갖추어지는 과정(命物)을 도상화하면서 그것이 인간과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는氣 차원의 과정(生物)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됨을 나타내기 위해 「천명도」를 하→상의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그려낸다. 이러한 추만 「천명도」의 구도는 『중용장구』 1장 “天命之謂性”의 주자 주석을 통한 인간과 만물의 성이 음양과 오행으로부터 유래한다는 해석의 지평 위에서 고안된 것이다. 추만 「천명도」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현전하는 「천명도」들이 만물의 생성 과정(化生萬物) 속 하늘과 인간 및 만물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의 산물일 가능성을 검토하게 한다.

[주제어] 추만 정지운, 「천명도」, 生物, 命物

*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조교수

1. 들어가는 말

16세기 조선은 “천명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때로 평가된다.¹⁾ 이는 ‘천명’을 주제로 하는 그림과 글이 이 시기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사단칠정 논쟁의 발단이 된 작품으로 잘 알려진 퇴계 이황(1501-1570)의 「천명도」가 전하며, 하서 김인후(1510-1560)의 「천명도」 역시 현전한다. 고봉 기대승(1527-1572)과 일재 이항(1499-1576)은 「천명도」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적지 않은 학자들이 참여한 「천명도」 중심의 학술 논의는 1537년에 작성된 추만 정지운(1509-1561)의 「천명도」로부터 시작한다.

모재 김안국(1478-1543)과 사재 김정국(1485-1541)의 제자이기도 하였던 추만이 「천명도」를 처음으로 만든 것은 그의 나이 29세 때이다. 퇴계에 의하면 추만은 사재를 통해 성리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²⁾ 모재와 사재에게 이 그림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³⁾ 또 추만은 하서와 이 「천명도」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이것은 1549년의 일로서, 이를 계기로 하여 하서 역시 자신의 「천명도」와 짧은 글을 남긴다.⁴⁾ 또한 일재 역시 이 그림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기록이 보인다.⁵⁾ 1537년 추만에게서 처음으로 그려진 「천명도」는 1549년 하서와 1553

1) 윤사순, 『한국유학사』 상, 지식산업사, 2012, 275쪽 참조.

2) 이황, 「秋巒居士鄭君墓碣銘」(1562), 『退溪先生文集』 권47. “君自少挺質不凡, 嚶嚶然有願學之志, 會思齋金先生退居于縣之芒洞, 君往從之遊, 有味於性理之說, 以聖賢之言爲必可信, 而不枯於世俗之陋習, 在門多年, 先生亟稱許焉. 後又登慕齋先生之門, 以質其疑.”

3) 정지운, 「天命圖說序」(1554), 『天命圖說』, “圖既草則亦不可不見正於長者, 遂就質於慕齋·思齋兩先生, 兩先生不深責之, 且曰‘未可輕議姑俟後日’. 不幸兩先生相繼以歿, 嗚呼痛哉. 由是此圖之草質所見正, 而余之學問日就荒蕪, 幾不能自振.” *이 글에서 인용한 『천명도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천명도설』(청구기호 K3-145)이다. 이는 1640년 택당 이식(1584-1647)이 중간한 것이다.

4) 하서 「천명도」와 글은 『天命圖解』에 수록되어 있다. “鄭君靜而, 朝夕還京, 千里相思, 無以爲言, 姑以是, 題其圖後而贈之.” 유정동,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에 관하여」(『동양철학의 기초적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6), 497-498쪽 참조. *이 글에서 인용한 『천명도해』은 고려대 소장 『천명도해』(청구기호 만송_貴_356)이다. 번역은 『秋巒實記』, 秋巒實記發刊推進委員會, 1993 참조.

5) 이황, 「天命圖說後叙」(1553), 『퇴계선생문집』 권41. “惟滉言有未當者, 則必極力辨難, 要歸之至當而後已焉, 而并舉湖南士人李恒所論‘情不可置氣圈中’之說, 以爲集衆長之資.”

년 퇴계를 통해 각각 각기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전개되고, 이후 1561년에는 고봉이 퇴계의 그림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반영한 「천명도」를 제시하기도 한다.⁶⁾ 16세기 조선에서는 추만 「천명도」에 대한 해석적 논의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천명도」가 등장한다.⁷⁾

“도설의 成風”⁸⁾을 조선 유학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천명도」는 『중용』 1장을 통해 이해한 주자학적 하늘과 만물의 관계를 도상화한 것이다. 주자의 해석에 따르면, 『중용』 1장의 “天命之謂性”은 하늘이 만물을 化生(생성)하는 과정 속에서 기가 형체로 이뤄지고 리 역시 부여되어 성이 됨을 설명하는 구절이다.⁹⁾ 추만은 자신의 「천명도」가 『성리대전』의 「性理·人物之性」에 수록된 주자설¹⁰⁾과 『중용』에 근거하여¹¹⁾ 하늘과 사람의 리가 동일함을 밝히기 위해 저술된 것이라고 말한다.¹²⁾ 추만의 「천명도」는 천명에 대한 주자학적인 이해에 따라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하서의 「천명도」는 그림과 짧은 글이 전한다. 분량이 많지 않지만 이 그림과 글을 통해서 하서의 「천명도」가 『중용』과 「태극도설」에 기반하여 구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¹³⁾ 또한 하서 「천명도」는 큰 틀에서 추만의 「천

6) 고봉의 그림은 「擬定天命圖」라는 이름으로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하편(『고봉전서』 5, 민족문화추진회, 2007)에 수록되어 있다.

7) 기간 진행된 추만, 하서, 퇴계, 고봉의 「천명도」 작성과 개정 및 각 판본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다음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허준원, 「퇴계 이후의 「천명도」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참조.

8) 이병도, 「이조 초기의 유학」 14, 『동아일보』, 1930년 3월 23일. 여기에서 「천명도」는 양촌 권근(1352-1409)의 『입학도설』 등과 함께 원대 도설류 문헌의 유입과 영향으로 조선조 초기 정립된 조선 유학의 특징과 전개를 보여주는 자료로 언급된다.

9) 주희, 『중용장주』 1장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석.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猶命也。於是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

10) 정지운, 「천명도설서」(1554), 『천명도설』. “余於是試取朱子之說, 【見『性理大全』, 論人物之性.】參以諸說, 設爲一圖, 而又爲問答, 名曰「天命圖說」, 日與舍弟講之.”

11) 정지운, 「천명도해서」(1543), 『천명도해』. “『中庸』之書, 以「天命」二字, 爲一篇之始, 余嘗取以究之.”

12) 정지운, 「천명도해서」(1543), 『천명도해』. “是以子思子當道學幾廢之時, 作書示人, 而首言天命, 以明此理之在天在人者未嘗不一, 此余之所以承其遺意而作圖者也.”

13) 김인후, 『천명도해』에 수록된 글(1549). “雜天之命, 於穆不已, 生生之理, 未嘗間斷, 所乘之機, 日陰與陽, 一動一靜, 互爲其根, 萬物竝育, 相爲流通, 但枯於形氣之私, 不能知之, 惟天下聰明睿智, 至誠無息, 能盡其性者, 乃能有以察其幾焉.”

명도」와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만「천명도」와의 비교를 통해 그 함의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 퇴계의 경우 추만「천명도」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태극도설」의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천명의 합의”와 “천명의 위치”를 중심으로 개정한 새로운 형태의「천명신도」를 작성한다.¹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상당한 분량의 설명을 남김으로써,¹⁵⁾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추만과는 다른 이해를 선명히 노정한다.

이 글에서는 하늘과 만물,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추만 정지운의「천명도」를 살펴보면, 16세기 조선에서 서로 다른「천명도」들이 등장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된 추만「천명도」의 견해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추만「천명도」의 도상 이해

추만은「천명도해서」에서「천명도」가 하늘과 인간의 합일 관계에 주목한 것이라 말한다.¹⁶⁾ 추만의「천명도」는 크게 天形과 地形, 人形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장 큰 삼중의 고리 형태의 둥근 원으로 표현된 천형에서 가운데 백색 고리 부분에는 ‘원’-‘형’-‘리’-‘정’과 함께 각각을 좌우로 둘러싼 형태로 ‘誠’[夾書]이 적혀있다.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이 점진적으로 갈마들고 있는 바깥 고리와 안쪽 고리에서는 ‘목’-‘화’-‘금’-‘수’가 ‘원’-‘형’-‘리’-‘정’을 위아래로 둘러싸고 있다. 또한 ‘토’는 ‘목’과 ‘화’ 사이, ‘화’와 ‘금’ 사이, ‘금’과 ‘수’ 사이, ‘수’와 ‘목’ 사이에 모두 등장한다. 가장 바깥 고리 밖에는 12간지가 쓰여있는 데, ‘貞’과 ‘水’가 적힌 부분에서부터 ‘子’로 시작하며, ‘巳’ 옆에는 ‘陰盡消’,

14) 강경현, 「천명에 대한 조선유학의 주목과 퇴계 해석의 철학사적 의의」,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19쪽 참조.

15) 이황, 「천명도설후서」(1553), 『퇴계선생문집』 권41.

16) 정지운, 「천명도해서」(1543), 『천명도해』, “余於此圖備載天人之理, 以示天人一體.” 이 글에 수록한 추만「천명도」는 『천명도해』에 실린 것이다.



〈그림-1〉 추만 「천명도」

‘亥’ 옆에는 ‘陽盡消’가 적혀있고, 가장 안쪽 원 안에는 ‘子’ 부근에 ‘陽始長’, ‘午’ 부근에 ‘陰始長’이 적혀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바깥 고리와 안쪽 고리에는 검은색과 흰색이 점점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형태로 칠해진다.

추만은 천형의 가운데에 자리한 백색 고리를 理圈, 바깥 고리와 안쪽 고리를 氣圈이라고 설명한다.¹⁷⁾ 이 리권과 기권은 ‘子’와 ‘水’, ‘貞’과 ‘誠’이 적혀 있는 그림 하단 6시 방향에서 네모 모양의 검은 地形에 있는 인형, 금수, 초

17) 정지운, 「雜解」, 『천명도해』, “於天形則其環五行於方位, 而半白半黑者, 爲氣圈, 其於氣圈中虛一途, 而環列四德者, 爲理圈.”

목과 연결되며, 마치 천형과의 연결 통로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 리권에 ‘命’이라는 글자가 거꾸로 적혀있다. 천형으로부터 이어진 이 리권과 기권은 인형과는 곧은 직선으로, 금수, 초목과는 사선으로 연결된다. 그가운데 금수로 향한 사선 옆에는 ‘陰陽偏氣中之正’이, 초목으로 향한 사선 옆에는 ‘陰陽偏氣中之偏’이 적혀있다. 추만은 자신의 「천명도」의 구도를 命圖와 心圖로 설명하는데,¹⁸⁾ 이상의 내용이 命圖에 해당한다.

한편 이 그림에서 흰색은 리 혹은 양, 검은색은 음을 상징하는데, 검은색의 네모난 지형에는 인간과 금수, 초목이 도상화되어 있다. 먼저 인간은 ‘平正直立’과 ‘頭圓足方’이라는 말과 함께 땅 중앙에 가장 크게 그려지며, 좌하단의 금수에는 ‘橫生尾上’, 우하단의 초목에는 ‘逆生向下’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또한 천형으로부터 이어진 리권과 기권의 선은 금수, 초목과도 연결되어 있다. 금수와 초목 내부에는 ‘性’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다만 초목은 ‘全塞不通’이라는 설명과 함께 완전히 검은색으로, 금수는 ‘或通一路’라는 설명과 함께 性 부분은 하얀색으로 표현된다. 인간의 경우 리권과 기권이 가장 넓은 선으로 천형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五性旁通’이라고 적혀있다.

추만이 心圖라고 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형의 내부는, 리권과 연결되어 있으며 ‘仁’-‘義’-‘禮’-‘智’와 그것을 좌우로 둘러싼 ‘信’[夾書] 그리고 ‘存養’과 그것을 좌우로 둘러싼 ‘敬’[夾書]이 적힌 흰색의 원, 그리고 기권과 연결되어 있으며 ‘喜’-‘怒’-‘哀’-‘樂’-‘愛’-‘惡’와 그것을 각각 좌우로 둘러싼 ‘欲’[夾書]이 적혀있으면서 검은색과 흰색이 반반 칠해져 있는 원으로 도상화된다. 이 인-의-예-지와 회-로-애-락-애-오는 모두 천형의 원-형-리-정, 목-화-금-수의 위치, 곧 방위에 맞춰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 성과 정의 항목을 각각 기입해 놓은 두 원은 ‘心’[夾書]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인간의 심 위에는 ‘意’가 거꾸로 적혀있는데, 그 위로 ‘회’-‘로’-‘애’-‘락’-‘애’-‘오’-‘육’이 직선으로 연결된 ‘善’과 ‘회’-‘로’-‘애’-‘락’-‘애’-‘오’-‘육’이 굴곡진 선으로 연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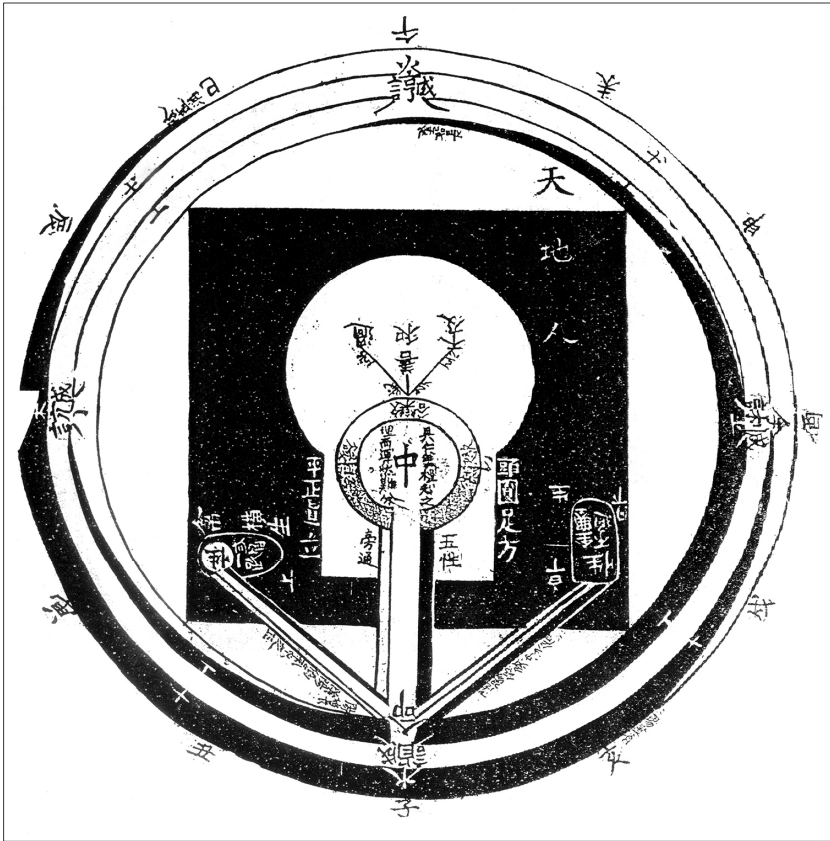
18) 정지훈, 「천명도해서」(1543), 『천명도해』. “由是, 余因子思子天命之言, 創爲命圖, 而必以心圖, 置乎其下, 以具其理氣.”

‘惡’ 그리고 그 사이에 ‘敬’에 둘러싸인 ‘省察’을 기입하며 이 그림은 마무리가 된다.

하서「천명도」를 살펴보면 천을 형상화한 부분에서는 추만「천명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人形 부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사람의 心圈 속 理圈에 ‘中’과 ‘具仁義禮智之理而渾然難分’이라고 적혀 있다. 또 이를 둘러싸고 있는 氣圈에는 ‘희’·‘로’·‘애’·‘락’·‘애’·‘오’·‘욕’이 표기되어 있으며, 이 心圈의 윗 부분에는 세 갈래의 선이 뺨어나오고 있는 ‘幾’라는 글자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가운데 직선에는 ‘善’과 ‘和’가, 다른 좌우 사선에는 둘로 쪼개진 ‘惡’과 ‘過’·‘不及’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 추만과 하서「천명도」의 이러한 차이는 하서가 추만에 비해 『중용』의 개념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추만은 性情意 구도로 사람의 심을 구성하고 있지만, 하서는 中和 구도로 전환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惡 역시 過·不及의 차원에서 그려내고 있다.

그렇지만 추만과 하서「천명도」의 천 부분은 대체로 동일하다. 퇴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그려진 「천명도」에 견주어 보면 그 유사성은 보다 선명히 파악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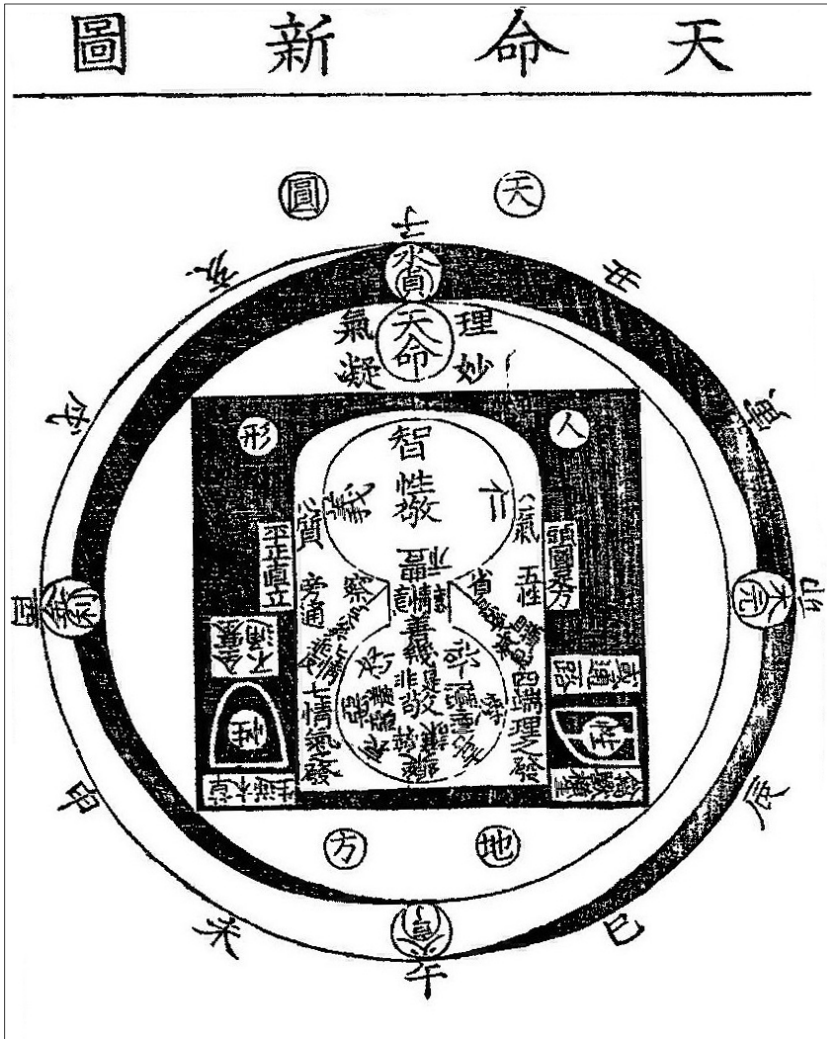
19) 그러한 이유로 추만, 하서와 퇴계의 사유를 대비해서 파악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특히 사단칠정 논변과 관련하여 추만, 하서의 사유를 고봉이 있고 있다는 점을 해석해내기도 한다. 유권중, 「천명도 비교 연구: 추만, 하서, 퇴계」, 『한국사상사학』 19, 한국사상사학회, 2002, 147쪽 참조.



〈그림-2〉 하서 「천명도」

한편 퇴계의 「천명신도」²⁰⁾를 살펴보면 추만 「천명도」와 천-지-인의 큰 구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한편으로는 달라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20) 이 글에 수록한 퇴계의 「천명신도」는 『퇴계선생문집』 권41(『退溪集』 II, 『韓國文集叢刊』 30, 민족문화추진회, 1989)에 실린 것이다.



〈그림-3〉 퇴계 「천명신도」

우선 ‘천명’의 위치다. 실은 추만 「천명도」에는 ‘天形’과 ‘命’이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퇴계 「천명도」에서 비로소 ‘天命’이라는 글자가 명기된다. 그리고 바로 이 천명이 그림 하단이 아니라 그림 상단에 ‘理氣妙凝’이라는 글자와 함께 적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天圓’으로 바뀐 천형 자체가 180도 회전하

는데, 이로써 子-水-貞은 그림 상단 12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천형과 인형, 금수, 초목을 연결하던 리권과 기권으로 이루어진 선들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인데, 리권은 연결선뿐만이 아니라 천형에서 고리 모양으로 존재하던 것까지 모두 사라진다. 또한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서도 심 바깥에 있던 ‘意’가 심 내부로 들어오며 四端이 비로소 등장한다. 참고로 고봉 역시 퇴계에게 「천명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그림을 전달한다.



〈그림-4〉 고봉 「의정천명도」

이러한 추만과 해서, 퇴계 그리고 고봉에 의해 각기 다른 「천명도」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했듯, 추만은 자신의 「천명도」 작성 목적이 하늘과 사람의 리가 동일함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하였는데, 다른 이들은 이와는 다른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보이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일부 각론적 이견이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천명을 주제로 천인 관계에 대한 도상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추만이 자신의 「천명도」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만이 자신의 「천명도」에 담아내고자 했던 생각을 확인하는 데 있어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은 「천명도해」이다.²¹⁾ 「천명도해」는 총 9개의 주제를 다루면서 「천명도」에 도상화된 상징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다.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天命圖解序

- 1 · 論天命之理 2 · 論五行之道 3 · 論物生之原
- 4 · 論人物之殊 5 · 論此心之具 6 · 論性情之目
- 7 · 論善惡之分 8 · 論氣質之品 9 · 論存省之要

雜解

21) 이 글에서 살펴본 「천명도해」는 추만의 「천명도해」를 처음 소개하며 잘못된 페이지를 바로잡아 그 내용을 확정한 유정동의 연구(「천명도해」고, 『동양철학의 기초적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6)에 기초한다. 참고로 이를 기반으로 「천명도해」에 집중하여 분석한 정대환의 연구(「추만 정지운의 성리학」, 『철학연구』 66, 대한철학회, 1998) 및 그 「천명도해」를 퇴계 「천명도설」과 비교한 유권종의 연구(「퇴계의 『천명도설』 연구」, 『공자학』 9, 한국공자학회, 2002)가 있다.

3. 추만「천명도」에 반영된 하늘과 인간의 관계

1) 만물 화생과 음양 오행: 生物

먼저「천명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상화된 ‘천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 보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만「천명도」의 天形에 기입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만「천명도」에서 천명은 하나의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다. 퇴계「천명신도」에서 그림 상단에 있는 하나의 작은 원 안에 ‘天命’이 바르게 적혀있는 것과는 다르게, 추만「천명도」에서 ‘天’은 천형에서만 발견되고, ‘命’은 그림 하단에 거꾸로 적혀있다.

추만이 ‘命’을 그림 하단에 위치시킨 까닭은 오행 가운데 水에 담긴 의미 때문이다.

또 물었다. “元에 物을 시작하게 하는 理가 있고 木의 氣가 그것을 받아 낳는 것이라면, 物을 낳는 뿌리는 의당 木 아래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그림에서는 物을 낳는 뿌리가 水 아래에서 나오게 하였다. 어째서인가?”

말했다. “元이 참으로 物을 시작하게 하는 리이고 木 역시 物을 낳는 기이지만 元이라는 리가 되는 것은 元에서 나오지 않고 貞에서 나오며, 木이라는 기가 되는 것은 木에서 나오지 않고 水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貞이 物을 이루는 리가 되면서도 시작함이라는 리도 있으며, 水가 物을 저장하는 기가 되면서도 낳음이라는 기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水가 貞의 덕을 받아 만물을 낳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모든 物이 생겨남에 그 형체는 木의 기를 기다려 이뤄지지만 그 형체가 이뤄지는 근원은 사실 水의 기에서 조짐을 보인다.

무엇으로 그러함을 아는가? 생각건대 物이 생겨나는 것은 그 처음에 우선 水의 기를 받고 점차 영기고 모여 오랜 후에 견고해져 형체를 이루지 않음이 없다. 천지가 생겨나는 것 역시 먼저 水氣로 이뤄지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아직 나뉘지 않은 처음에 水의 기가 太陽에서 생겨나 太陰에서 이뤄져, 아득히

뒤섞인 채 萬家를 들어 하나의 웅덩이를 이룬다. 그것이 오래되면 기 가운데 맑은 것은 모여서 하늘이 되고 기 가운데 탁한 것은 엉기어 땅이 되어 비로소 천지의 형체가 있게 되는데, 이것만이 아니다.子在 水의 자리에 있으면서 水와 더불어 짝하기 때문에 子가 12支의 처음이 되고, 一元에서는 子會가 되어 하늘이 비로소 열리며, 一歲와 一日에서는 子月과 子時가 되어 양이 비로소 자란다. 이 역시 水가 기의 처음이 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物을 낳는 뿌리가 水 아래에서 나오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다.”²²⁾

추만은 현상 세계의 하늘과 땅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水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天地의 존재만이 아니라, 十二干支와 一元, 一歲, 一日로 상징되는 시간적 요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를 추만은 “물을 낳는 뿌리[生物之根]가 水 아래에서 나온다.”는 말로 설명한다. 하루 중 陽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간으로도 사용되는 子는 水와 함께 “만물이 생겨나는 근원[物生之原]”²³⁾이다.

이러한 水-子가 그림 하단에 자리한 이유는 水라는 것이 본래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居下之物]”이기 때문이다.

말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아래로부터 나와 위로 향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水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居下之物]이면서 物을 낳는 뿌리이니, 그 기의 뿌리가 아래에서 따르지 않으면 어디로부터 따르겠는가? 하물며 무릇 음양의

22) 정지운, 「3·論物生之原」, 『천명도해』. “又問, ‘元有始物之理, 而木之氣承之以生, 則其生物之根, 宜出於木下, 而於圖, 使其生物之根必出於水下者, 何耶?’ 曰, ‘元固爲始物之理, 木亦爲生物之氣, 而其所以爲元之理, 不出於元而出於貞, 其所以爲木之氣, 不出於木而出於水. 故貞爲成物之理, 而亦有始之理, 水爲藏物之氣, 而亦有生之氣. 此水之所以承貞之德, 以生萬物者也. 是故, 凡物之生也, 其形則雖待木之氣而成, 其所以形之原, 實朕於水之氣矣. 何以知其然也? 蓋物之所以生者, 其初也莫不先稟乎水之氣, 漸以凝聚, 久而後堅固而成形焉. 至於天地之所以生者, 亦莫不先以水氣而成. 故天地未判之初, 水之氣生乎太陽, 而成於太陰, 混混茫茫, 舉萬家而成一滌. 及其久也, 其氣之清者, 聚以爲天, 其氣之濁者, 凝以爲地, 始有天地之形焉, 非獨此也. 子居水位, 與水相配, 故子爲十二支之首, 於一元, 爲子會而天始開, 於一歲一日, 爲子月子時而陽始長. 此亦水爲氣之始故也. 然則生物之根, 所以出於水下者, 槩可知矣.’”

23) 정지운, 「3·論物生之原」, 『천명도해』. “右第三節, 論物生之原.”

기는 모두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역』을 지은 성인도 괘를 그릴 적에 반드시 하효를 처음으로 삼았다. 이것 역시 알지 않으면 안 된다.”²⁴⁾

추만「천명도」는 오행 가운데 아래쪽에 위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水 아래에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뿌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이해 위에서 작성된다. 그리고 그에 입각하여 만물의 생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도상화된다. 그것이 『역』의 괘를 그리는 순서가 하효부터이듯 음양의 기가 상향의 방향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기에 대한 이해와 부합한다는 것이다.²⁵⁾ 그렇다면 추만「천명도」에서 그림 하단에 위치하면서 거꾸로 적혀있는 ‘命’은 만물의 생성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만물이 생겨나는 뿌리에 해당하는 水를 중심으로 기가 갖고 있는 하→상의 생성의 방향성에 맞추어 도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양의 기와 오행의 특성에 따라 「천명도」라는 그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命’의 위치와 구도를 정한 것이라는 추만의 설명은 이 그림이 만물의 형체(形)가 이뤄지는 과정을 기반으로 그려진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물의 형체 형성 과정으로의 주목이 추만「천명도」의 전체 구도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추만「천명도」가 이 세계를 만물이 형체를 갖고 화생(생성)하는 공간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 추만은 기의 운행 흐름을 기반으로 「천명도」의 구도를 정한다.

그런데 사실 이 ‘命’이 적힌 통로와 같은 백색 선은 천형의 기권 안의 리권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그림 전체의 구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음양의 기와 오행의 특성에 따라 이해한 만물 화생의 과정에서 찾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물 생성의 결과로서 형체를 갖춘 존재인 인간과 금수, 초목은 천형

24) 정지운, 「3·論物生之原」, 『천명도해』, “曰, ‘然則其根之出必自下而上者, 何耶?’ ‘蓋水爲居下之物, 而爲此生物之根, 則其氣之根不從乎下而何所從也? 況凡陰陽之氣, 皆自下而上, 故作『易』聖人亦於畫卦之際, 必以下爻爲初. 此亦不可不知者也.”

25) 퇴계에 의하면 이는 「하도」, 「낙서」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이황, 「천명도설후서」(1553), 『퇴계선생문집』 권41. “自北面南, 而分前後左右, 仍以後子爲下, 前午爲上者, 「河」·「洛」以下皆然也. 其所以然者, 陽氣始生於下, 而漸長以極於上, 北方, 陽氣之始生也, 彼「圖」·「書」率以陰陽消長爲主, 而以陽爲重, 則由北而始於下, 固當然也.”

의 기권과만 연결되어도 무방할 듯 보이지만, 추만은 ‘命’을 오로지 리와 관련된 용어로 이해한다. 이러한 추만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천형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2) 만물에 부여되는 理: 命物

추만 「천명도」의 천형은 삼중의 큰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가운데 고리는 理圈으로 ‘元’·‘亨’·‘利’·‘貞’과 ‘誠’이 적혀있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두 고리는 氣圈으로 ‘木’·‘火’·‘金’·‘水’와 ‘土’가 적혀있는데, 리권을 제거하고 살펴보면 음양의 消長을 흑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추만은 원형리정을 각각 시작함[始], 형통함[通], 이룸[遂], 완성함[成]의 리라고 설명하면서²⁶⁾ 목화금수 및 토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이 때문에 사덕이 소위 리이고 오행이 소위 기인데, 그것이 유행하는 때에 元에 物을 시작하게 하는 리가 있으니 木의 기가 그것을 받아 낳고, 亨에 物을 형통하게 하는 리가 있으니 火의 기가 그것을 받아 자라나고, 利에 物을 이루는 리가 있으니 金의 기가 그것을 받아 거두고, 貞에 物을 완성하는 리가 있으니 水의 기가 그것을 받아 저장한다. 【土는 사계에 갖추어져 왕성하게 한다.】 이것이 하늘이 사덕과 오행을 갖추어 그 도를 완성하는 까닭이다.²⁷⁾

여기서 말하는 사덕은 원형리정이다. 추만에 따르면 원형리정은 오행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며 작용하게 하는 일종의 원리이다. 오행은 원형리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자연의 현상적 변화를 현실화한다. 만물이 형체를 갖추

26) 참고로 이러한 설명은 『주역』 건괘 문언전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주역본의』, 「건괘 문언전」. “元者, 生物之始 … 亨者, 生物之通 … 利者, 生物之遂 … 貞者, 生物之成 ….”

27) 정지운, 「2 · 論五行之道」, 『천명도해』. “夫是以四德者, 所謂理也, 五行者, 所謂氣也, 而其於流行之際, 元有始物之理, 則木之氣承之以生, 亨有通物之理, 則火之氣承之以長, 利有遂物之理, 則金之氣承之以收, 貞有成物之理, 則水之氣承之以藏. 【土則具旺四季.】此天之所以具四德 · 五行, 而成其道者也.”

고 화생하는 것 역시 이러한 사덕과 오행으로 진행되는 질서의 일환이다. 이것이 사덕과 오행의 협력으로 완성된 하늘의 도, 즉 天道의 유행 방식이다. 천도는 유행의 원리에 의거해서 실제로 유행한다는 것이다. 추만에게서 형체를 가진 만물의 생성은 원형리정의 원리가 음양오행의 작용을 결정짓는 방식 위에서 천도가 유행함으로써 실현된다.

나아가 추만은 이 천도의 시작과 이어짐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인, 원형리정이 순환하고 지속함을 의미하는 誠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바로 “만물에 명하는 근원[命物之源]”이라는 것이다.

말했다. “하늘은 곧 리이고, 그 덕에 네 가지가 있으니 원, 형, 리, 정【誠은 그 가운데 있다.】이 그것이다. 생각건대 원이라는 것은 시작함의 리이고, 형이라는 것은 형통함의 리이고, 리라는 것은 이름의 리이고, 정이라는 것은 완성함의 리인데, 시작해서 통하고 통해서 이루고 이루어서 완성하고 완성하면 다시 시작하여 순환하며 쉬이 없는 것은 바로 誠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誠이 사덕을 관통하고 그 리를 하나로 하여 결국 만물에 명하는 근원이 되는데, 이것이 천명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천도가 유행하는 때를 당하여 이 리는 항상 그 안에 깃들여 있다 가 만물의 來受를 들으면 부여된다.²⁸⁾ 그러므로 物의 性 역시 네 가지이니, 인의 예지【신 역시 四성에 갖추어져 있다.】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으면 명이라 하고 물에 있으면 성이라 한다. 性과 物이 그 이름은 다르지만 그 리는 같다.”²⁹⁾

말했다. “천지 사이에 리가 있고 기가 있다. 하늘에서 體【리를 체용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여기서 굳이 체라고 한 것은 기로부터 리를 보면 본체가 되기 때문이

28) 정대환의 번역 참조. “이런 까닭에 천도가 유행할 즈음에 이르러 이 리는 항상 그 가운데 의탁하여 있으며, 그 만물이 와서 명을 듣게 될 때 이를 부여한다.” 정대환, 「추만 정지운과 조선유학」, 『철학연구』 82, 대한철학회, 2002, 219쪽.

29) 정지운, 「1·論天命之理」, 『천명도해』. “曰, ‘天卽理也, 而其德有四曰, 元·亨·利·貞【誠在其中.】是也. 蓋元者, 始之理, 亨者, 通之理, 利者, 遂之理, 貞者, 成之理, 而其所以始而通, 通而遂, 遂而成, 成而復始, 循環而無息者, 乃誠之爲也. 故此誠也, 貫四德, 一其理, 遂爲命物之源, 此所謂天命也. 是以, 當天道流行之際, 此理常寓於其中, 聽其萬物之來受者而賦與之. 故物之性亦有四, 仁·義·禮·智【信亦具於四性.】是也. 故在天曰命, 在物曰性. 性與物, 其名雖異, 其理則一也.’”

다.】가 되어 이 만물의 性을 부여한 것은 이 리이고, 하늘에서 用【기는 자체로 체용으로 나뉘지만 여기서 오직 용만을 말한 것은 리로부터 기를 보면 대응이 되기 때문이다.】이 되어 이 만물의 形을 이룬 것은 이 기이다. 리는 기의 체이고 기는 리의 용이니, 리가 있으면 기의 조짐이 있고 기가 있으면 리의 따름이 있어 천지의 功을 이루는데, 리와 기가 서로 필요로 하면서 빠트리지 않는 것이 이와 같다.”³⁰⁾

원형리정의 지속적인 순환 곧 誠은 사덕과 오행, 즉 (하늘의) 리와 기가 相須하며 시공간을 조직하고 만물을 끊임없이 생성함으로써 이 세계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추만은 바로 이 천도 유행의 상황에서 형성된 만물의 형체에 리가 부여되는 과정(賦)을 命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추만은 음양 오행의 차원에서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기반하여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자 원리로서 리 그리고 그것이 만물에 부여되는 과정을 리권이라는 흰색 통로로 도상화한다. 이는 “만물의 性을 부여한” 이 리와 “만물의 形을 이룬” 이 기를 체용 구도 위에서 설명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상기하여야 하는 것은 추만 「천명도」가 만물 생성의 과정을 음양 오행이라는 기의 기능에 따른 흐름과 작용에 기반하여 전체 구도를 구상하며 도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추만의 용어인 “生物”과 “命物”의 미묘한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천도 유행의 상황에서 만물의 형체를 형성하는 것, 즉 生物은 천형의 기권으로부터 연결되어 이어지면서 기의 기능, 특히 만물의 형체를 형성하는 뿌리인 오행의 水를 통로로 하며 도상화된다. 그리고 형체가 형성된 만물에 리를 부여하는 것, 즉 命物은 천형의 리권으로부터 이어지는 방식으로 도상화되기는 하지만 水를 통로로 하는 기권의 흐름을 따라 그려진다. 추만은 원형리정과 誠이 만물 생성의 과정에서

30) 정지운, 「2·論五行之道」, 『천명도해』. “曰, ‘天地之間, 有理有氣. 其所以爲體【理不可分體用, 而於此必謂之體者, 自氣而觀理, 則爲本體故也.】於天, 而賦此萬物之性者, 此理也, 其所以爲用【氣則自分體用, 而於此獨謂之用者, 自理而觀氣, 則爲大用故也.】於天, 而成此萬物之形者, 此氣也. 理爲氣之體, 氣爲理之用, 纔有理, 便有氣映焉, 纔有氣, 便有理從焉, 以遂天地之功, 理氣之相須無闕者, 如是.”

음양과 오행의 기능을 결정짓는 원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천명도」에서 “생물”의 과정에 기반하여 “명물”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生物 과정에 기반한 命物의 도상화로 인해 추만 「천명도」는 水-子-貞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그림 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추만 「천명도」가 그림 하단에서 상단으로의 방향성을 갖고 작성되는 이유이다. 이는 곧 리의 명물의 과정이 기의 생물의 과정에 기반하여 묘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이는 추만이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위주로 하늘과 만물의 관계를 바라봄으로써, 만물이 리인 성을 갖추게 되는 것은 만물이 형체를 갖게 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3) 天人一體의 의미

음양 오행의 차원에서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는 과정, 즉 生物의 과정을 기반으로 만물에 리가 부여됨을 말하는 추만 「천명도」의 방식은 사실 『중용장구』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자의 주석 사이의 연관성 속에서 조명될 수 있다.

(천명지위성의) 명은 령이라는 뜻이다. 성은 바로 리이다. 천은 음양, 오행으로 만물을 화생한다. 기가 형을 이루면 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여되는데, 마치 명령과 같다. 이처럼 사람과 만물이 생겨날 때에는 각각 부여받은 리를 얻음을 통해 건순과 오상이라는 덕으로 삼는다. 이것이 (천명지위성의) 성이다.³¹⁾

기노시타 데쓰야에 따르면 이 주석은 인간을 포함하는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고 성이 존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일원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성의 유래”와 관련한

31) 주희, 『중용장구』 1장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석. “命, 猶令也. 性, 卽理也.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猶命令也. 於是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

주자의 이 기술에 대한 그의 분석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는 이 주석에서 성의 내용이 “건순”과 “오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건순은 『주역』 「설괘전」에 의하면 순양괘인 건괘와 순음괘인 곤괘의 덕인데,³²⁾ 인간과 만물의 성을 건순으로 표현한 것은 성의 유래를 음양에서 찾는 것이며, 인의예지신을 뜻하는 오상으로 설명한 것은 목화토금수 오행에 유래를 두며 성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연원을 기노시타 데쓰야는 한유의 「원성」과 정현의 『예기정의』 「중용」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석에서 찾는다.³³⁾

요컨대 이 주석은 인간과 만물의 형체와 성이 모두 음양오행의 기와 그 기의 리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입장 위에서 기술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노시타 데쓰야는 주자학에서 이처럼 성의 유래를 음양과 오행이라는 기에서 찾는 사유가 반영되어 있는 문헌으로 『중용장구』, 『대학혹문』, 『논어혹문』을 제시한다.³⁴⁾ 그의 이러한 해석은 「경연강의」에 보이는 주자 만년(1194년)의 설명이 이와는 다르게 성의 유래를 기가 아닌, 음양 오행 이전의 태극 자체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제시된다.³⁵⁾ 성의 유래를 음양과 오행으로 보는지, 아니면 리로 해석되는 태극으로 보는지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실은 주자학 내에 이미 배태되어 있던 쟁점적 주제라는 것이다.³⁶⁾ 다만 그의 이러한 분석은 적어도 성의 유래를 음양과 오행으로 보는 견해가 충분히 주자학적 「천명지위성」 해석의 스펙트럼 안에 있을 가능성을 승인케 한다.

기노시타 데쓰야처럼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천이 만물을 화생함을 언급하면서 형체의 이루어짐을 먼저 거론하고 그 다음에 리가 부여

32) 『주역』 「설괘전」 7장. “乾, 健也, 坤, 順也.”

33) 기노시타 데쓰야, 조영렬 번역, 『주자학』, 교유서가, 2019, 82-98쪽 참조.

34) 『중용장구』 1장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석, 『대학혹문』 경1장에 대한 부분, 『논어혹문』 「학이」 2장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대표적인 기일원론적 주자학 흐름의 대표 문헌으로 북계 진순(1159-1223)의 『북계자의』를 제시하고 있다. 기노시타 데쓰야, 조영렬 번역, 『주자학』, 교유서가, 2019, 101쪽 참조.

35) 기노시타 데쓰야, 조영렬 번역, 『주자학』, 교유서가, 2019, 102-115쪽 참조.

36) 최근 한 연구에서는 기노시타 데쓰야의 이러한 분석에 착안하여 주자의 성론이 음양 오행과 태극이라는 두 연원을 융합해 나가는 이론이라고 보았다. 김한상, 「주자 성리학에서 두 가지 연원의 성론」, 『한국학연구』 6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404쪽 참조.

됨을 말한 것이라고 읽었을 때, 추만「천명도」에서 ‘命’을 그림 하단에 위치시키면서 천형의 기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리권 속에 거꾸로 적은 것은 그러한 이해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만은 『중용장구』 1장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서 기와 관련한 설명에 주목하여 만물을 화생하는 천과 생성된 만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한 명물의 과정을 도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추만「천명도」에서 기 중심의 生物 과정을 기본 구도로 하면서 리 중심의 命物 과정을 수반시켜 도상화하는 것은 “천명지위성”에 대한 기일원론적 입장에서 있는 주자학적 해석의 지평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만「천명도」에서 천형과 인형, 금수, 만물을 연결하는 세 개의 통로와 같은 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이 통로는 생물의 과정인 목화금수와 토의 순환적 흐름으로부터 만물의 형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기 차원의 연결됨과 그에 기반하여 명물의 근원인 원형리정과 誠으로부터 만물의 性으로 이어지는 리 차원의 통함을 도상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성과 만물의 형체가 각각 하늘의 리와 하늘의 기를 근원과 뿌리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물었다. “하늘과 인간, 物을 도상화한 것에서 어떤 것이 리이고 어떤 것이 기인가?”

말했다. “천형에서 방위에 맞게 있는 오행을 빙 두르면서 반은 하얗고 반은 검은 부분이 기권이고, 기권 안에 하나의 길을 비워놓고 사덕을 빙 두르면서 배열해 놓은 부분이 리권이다. 그러므로 원에서 형까지, 형에서 리까지, 리에서 정까지, 정에서 다시 원이 되는데 하나의 길로 통하면서 쉬임이 없다. 처음 하얗게 되는 子半에서부터 완전히 하얗게 되는 巳까지가 陽儀이니, 水와 木이 그 안에 있고, 처음 검게 되는 午中에서부터 완전히 검게 되는 亥까지가 陰儀이니, 火와 金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이 하늘에서 리와 기를 나눈 까닭이다. 인간과 만물을 도상화한 것의 경우에는 그것이 생겨나는 뿌리가 하늘에서 처음 나오니, 그래서 가운데를 비워서 리권에 통한 것이 성의 근원이 되고, 왼쪽은 하얗게 오른쪽은 검게 하여

기권에 연결한 것이 형체의 뿌리가 된다. 이것이 사람과 만물에서 리와 기를 나누는 까닭이다.”³⁷⁾

추만에게서 만물과 인간은 리의 차원에서 하늘의 리에 통합으로써 그것을 근원으로 삼아 성을 갖추고, 하늘의 기에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그것을 뿌리로 삼아 형체를 이룬다.³⁸⁾ 앞서 하늘의 리와 기로 도상화된 추만 「천명도」의 천형이 형체를 갖고 있는 실제 만물이 화생하는 시공간적 배경임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추만이 실제로 운행하며 존재하는 자연으로서의 이 세계를 실제로 화생된 만물의 근원이자 뿌리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만물, 특히 인간은 하늘과 동일한 리와 기를 갖추고 생겨난다는 점에서 하늘을 닮은 존재로 이 세계에 등장한다.³⁹⁾ 추만이 「천명도」에 도상화한, 천형과 인간을 직선으로 잇고 있는 기와 리의 통로는 인간의 성과 형이 하늘로부터 유래하며, 나아가 그것이 형체 형성의 차원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과 만물의 태생적 조건으로서 그들에게 하늘과의 일치함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추만이 「천명도」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천인일체」의 함의는 바로 이것일 것이다. 특히 추만 「천명도」는 원-형-리-정-誠과 인-의-예-지-신, 목-화-금-수-토와 칠정을 각 방위에 짝지어 적어 넣음으로써 이러한 하늘과 인간의 일치를 도상화하고 있다.

37) 정지운, 「잡해」, 『천명도해』. “又問, ‘於天與人物之形, 何者爲理, 而何者爲氣耶?’ 曰, ‘於天形則其環五行於方位, 而半白半黑者, 爲氣圈, 其於氣圈中虛一途, 而環列四德者, 爲理圈. 故自元而亨, 自亨而利, 自利而貞, 自貞而復爲元也, 通乎一途而無雜焉. 自子半之始白, 至于巳之純白爲陽儀, 而水木居其內, 自午中之始黑, 至于亥之純黑爲陰儀, 而火金居其內, 此則所以分理氣於天者也. 於人物之形則其生之根始出於天也, 所以虛中而通乎理圈者爲性之源, 所以左白右黑而連乎氣圈者爲形之根. 此則所以分理氣於人物者也.’”

38) 이와 유사한 구도에서의 설명은 주희의 『대학호문』 “명덕”에 대한 설명에서 보이는데, 여기서는 천도 차원에서의 리-건순·인-의예지의 성, 천도 차원에서의 기(음양오행) - 혼백·오장·百骸의 身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대학호문』, 경문에 대한 설명. “天道流行, 發育萬物, 其所以爲造化者, 陰陽五行而已. 而所謂陰陽五行者, 又必有是理而後有是氣, 及其生物, 則又必因是氣之聚而後有是形. 故人物之生必得是理, 然後有以爲健順·仁義禮智之性, 必得是氣, 然後有以爲魂魄·五臟·百骸之身. 周子所謂‘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者, 正謂是也.” 참고로 『대학호문』은 16세기 조선에서 널리 읽힌 『사서대전』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성리대전』 권1, 「태극도」 부분에도 실려 있다.

39) 정지운, 「잡해」, 『천명도해』. “人爲天地之秀子而爲陽, 故頭必如天, 足必如地, 而平正直立, 物爲天地之偏塞子而爲陰, 故形不類人, 而或橫或逆.”

여기서 더 깊어보아야 하는 문제는 바로 주자의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석에도 등장하는 “성즉리”의 의미이다. 추만은 리 차원에서 “천인일체”를 보이는 것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목적이라고 강조한다.⁴⁰⁾ 즉 “성즉리”에 대한 규명이 이 그림의 주제이다. 추만 「천명도」에서 성즉리의 성은 하늘의 리와 통함으로써 그것을 근원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흰색 선으로 천형의 리권으로부터 직접 연결되어 도상화되어 있는 ‘인’·‘의’·‘예’·‘지’·‘신’이다. 그리고 추만 「천명도」에서 성즉리의 리는 만물의 화생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서의 ‘원’·‘형’·‘리’·‘정’과 그것의 지속적인 순환을 뜻하는 ‘誠’이다. 성즉리가 인간의 성이 하늘의 리와 같다고 해석될 수 있다면, 추만에게서 하늘의 리는 지속적으로 만물 화생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서의 원형리정이고, 이것과 동일하다고 설명되는 인간의 성은 진정한⁴¹⁾ 도덕적[善]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德]으로서의 인의예지이다. 그렇다면 추만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적 내면을 완전히 구현해 내는 것을, 하늘이 쉽없이 이 세계의 유지와 존속을 가능케 하는 생성의 순환에 견주며 「천명도」를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의 구비가 형체 형성의 진행 과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덕적 행위 실천의 능력으로서의 성이 부모가 자식을 낳듯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고, 또 필연적으로 갖추어진다고 본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추만 「천명도」의 천형에는 災異와 같은 이 세계의 비

40) 정지운, 「천명도해서」(1543), 『천명도해』. “是以子思子當道學幾廢之時, 作書示人, 而首言天命, 以明此理之在天在人者未嘗不一, 此余之所以承其遺意而作圖者也.”; “余於此圖備載天人之理, 以示天人一體.”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은 주희의 『중용혹문』 “천명지위성”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이는데, 命의 항목으로 원형리정을, 性의 항목으로 인의예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중용혹문』은 16세기 조선에서 널리 읽힌 『사서대전』에 수록되어 있다. 주희, 『중용혹문』. “蓋天之所以賦與萬物而不能自己者, 命也. 吾之得乎是命以生而莫非全體者, 性也. 故以命言之, 則曰元亨利貞, 而四時五行, 庶類萬化, 莫不由是而出. 以性言之, 則曰仁義禮智, 而四端五典, 萬物萬事之理, 無不統於其間. 蓋在天在人, 雖有性命之分, 而其理則未嘗不一.”

41) 추만은 信을 誠에 견주며, 인의예지의 실질이 있는 것이라 설명한다. 정지운, 「잡해」, 『천명도해』. “又問, 誠者, 天之實理也, 不可不書於四德之中, 第未知於圖必與人性之信爲配, 此則無乃近於牽合者歟?” 曰, “此非余之私見也. 昔, 周濂溪亦嘗以誠合乎四德而言之, 以配五常之信. 蓋信與誠之義, 皆訓爲實也. 故在天則元而有元之實, 亨而有亨之實, 利而有利之實, 貞而有貞之實者, 此誠也, 在人則仁而有仁之實, 禮而有禮之實, 義而有義之實, 智而有智之實者, 此信也. 然則信與誠, 名雖異而義則同, 此, 濂溪之所以配誠於信, 而余之所以述濂溪之意者也.”

-일상적인 어그러짐은 도상화되어 있지 않다. 추만 「천명도」에서는 인형, 그 가운데서도 ‘意’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악의 나뉘미가 표현되며, ‘敬’이 병기된다. 이는 추만 「천명도」가 주자학의 성즉리를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하늘을 닮은 채로 이 세계에 도덕적 존재로 존재하는 인간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선악의 현실화는 인간의 意가 개입되어야 하며, 바로 이 선악의 갈림길에 대한 처방으로 敬이 제시된 것이라는 이해를 도상화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달리 말해 추만 「천명도」는 인간과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는 氣 차원의 과정[生物]을 기반으로 하여 理가 인간과 만물에 性으로 갖추어지는 과정[命物]을 도상화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인간과 만물의 도덕성 구비를 형체 형성의 차원에서 설명하여 그 과정의 자연스러움과 필연적임을 표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선악을 인간의 意 차원에서 해명하며 공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4. 나오는 말

추만 정지운의 「천명도」는 16세기 조선의 학계에서 천명을 주제로 그려진 「천명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작성된다. 추만은 理가 인간과 만물에 性으로 갖추어지는 과정[命物]을 도상화하면서 그것이 인간과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는 氣 차원의 과정[生物]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됨을 나타내기 위해 「천명도」를 하→상의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그려낸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천명도」의 구도가 만물의 생성 과정[化生萬物] 속 하늘과 인간 및 만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용장구』 1장 “天命之謂性”의 주자 주석을 통해 인간과 만물의 성이 음양과 오행으로부터 유래한다는 해석의 지평 위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보았다.

추만의 입장을 이렇게 해석하였을 때, 추만 「천명도」에 대해 재해석적 논의를 진행했던 16세기 조선의 「천명도」들은 천인관계, 구체적으로 인간과 만물의 성의 유래와 관련한 하나의 쟁점을 시사한다. 추만과 하서의 「천명

도」는 공히 하→상의 구도로 그려진다. 『중용장구』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 대한 충실한 해석에서 기인한, 인간과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는 氣 차원의 과정[生物]을 기반으로 하여 理가 인간과 만물에 性으로 갖추어지는 과정[命物]을 도상화한 그림인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천명의 위치”를 그림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천명도」의 구도를 상→하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180도 회전시킨다. 퇴계의 이러한 개정은 「태극도」에서 “上天命物之道”를 읽어내는 자신의 독해에 근거한다.⁴²⁾ 추만 「천명도」에 담긴 인간과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는 氣 차원의 과정[生物]에 대한 도상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것의 방향성을 음양 소장의 방향인 하→상이 아니라 理가 인간과 만물에 性으로 갖추어지는 과정[命物]이 上天의 주재 아래 진행됨을 함의하는 상→하의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기노시타 데쓰야의 해석을 고려한다면, 이는 곧 음양 오행에 유래를 둔, 인간과 만물의 성에 관한 설명에 대한 개정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추만 「천명도」의 하→상의 구도가 인간과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는 氣 차원의 과정[生物]을 기반으로 하여 理가 인간과 만물에 性으로 갖추어지는 과정[命物], 형체 형성 과정에 수반되는 도덕성 구비의 과정을 도상화한 것이라고 보면서, 그것이 도덕성 구비의 자연스러움과 필연적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퇴계의 상→하 구도로의 개정은 유학의 전통적 주제인 천명을 중심으로 세계와 인간 및 만물을 도상화함에 있어 인간과 만물의 도덕성 구비가 과연 인간과 만물의 형체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갖추어지는가, 혹은 그러

42) 이황, 「천명도설후서」(1553), 『퇴계선생문집』 권41. “曰, 「河」·「洛」·「先」·「後天」等, 皆由下而始, 而此則由上而始, 何耶? 曰, 「是亦倣「太極圖」而然也, 而「太極圖」所以必由上始者, 請言其故. 自北面南, 而分前後左右, 仍以後子爲下, 前午爲上者, 「河」·「洛」以下皆然也. 其所以然者, 陽氣始生於下, 而漸長以極於上, 北方, 陽氣之始生也. 彼「圖」·「書」率以陰陽消長爲主, 而以陽爲重, 則由北而始於下, 固當然也. 至於「太極圖」, 則異於是, 原理氣而發化機, 示上天命物之道, 故始於上而究於下. 其所以然者, 天之位固在於上, 而降衷之命, 不可謂由下而上故也. 今之爲圖, 一依濂溪之舊, 安得於此而獨違其旨乎. 當初, 靜而因「河」·「洛」之例, 由下而始, 改而從濂溪之例, 澆之罪也.”; “曰, 「太極圖」, 旣以命物爲主, 則其圖之上面, 乃是上帝降衷之最初源頭, 而爲品彙根柢之極致, 與「河」·「洛」等圖以消長爲主者, 自不同也. 然則其圖之體, 只是豎起當中, 直看下來, 非偏以南方爲上也, 明矣.”

한 내용만을 담아내는 것으로 충분한가와 같은 의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성의 유래와 그 성을 천명이라 설명하는 유학의 전통적 사유를 주자학의 리기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나아가 어떤 문헌에 의거할 것인지와 같은 쟁점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쟁점 가운데 하나로 『중용장구』 “천명지위성”의 “命, 猶令也.”로 대표되는, 천명에서 명령의 함의를 보다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의 출현을 예견케 한다.

■ 참고문헌

- 『經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5.
- 『周易』, 保景文化社, 1986.
- 『四書或問』, 保景文化社, 1986.
-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고봉전서』5), 민족문화추진회, 2007.
- 『退溪集』(『韓國文集叢刊』29~31), 민족문화추진회, 1989.
- 『天命圖說』(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청구기호 K3-145)
- 『天命圖解』(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청구기호 만송_貴_356)
- 『秋巒實記』, 秋巒實記發刊推進委員會, 1993.
- 강경현, 「천명에 대한 조선유학의 주목과 퇴계 해석의 철학사적 의의」, 『퇴계학논집』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 기노시타 데쓰야, 조영렬 번역, 『주자학』, 교유서가, 2019.
- 김한상, 「주자 성리학에서 두 가지 연원의 성론」, 『한국학연구』6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 유권중, 「천명도 비교 연구: 추만, 하서, 퇴계」, 『한국사상사학』19, 한국사상사학회, 2002.
- _____, 「퇴계의 『천명도설』 연구」, 『공자학』9, 한국공자학회, 2002.
- 유정동,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에 관하여」, 『동양철학의 기초적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6.
- _____, 「『천명도해』고」, 『동양철학의 기초적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6.
- 윤사순, 『한국유학사』상, 지식산업사, 2012.
- 이병도, 「이조 초기의 유학」14, 『동아일보』, 1930년 3월 23일.
- 정대환, 「추만 정지운의 성리학」, 『철학연구』66, 대한철학회, 1998.
- _____, 「추만 정지운과 조선유학」, 『철학연구』82, 대한철학회, 2002.
- 허준원, 「퇴계 이황의 『천명도』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Analyzing Chu Man Jeong Jiun's “diagram of the heavenly mandate”

Kang, Kyung Hyun*

Chu Man Jeong Jiun's “diagram of the heavenly mandate” is the first of many “diagrams of the heavenly mandate” drawn in 16th-century Joseon on the theme of the heavenly mandate. Chu Man draws the “diagram of the heavenly mandate” in a downward-to-upward direction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li*(理) being equipped with *xing*(性) in human beings and all things[命物], and to show that it proceeds based on the process of *qi*(氣) dimension in which the forms of human beings and all things are created[生物]. The composition of Chu Man's “diagram of the heavenly mandate” i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hat *xing*(性) of human beings and all things is derived from the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as explained in Zhu's commentary on “What heaven imparts to man is called human nature[天命之謂性]” in Chapter 1 of *the Doctrine of the Mean*. This interpretation of the Chu Man “diagram of the heavenly mandate” invites u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the various extant “diagrams of the heavenly mandate” are the product of different posi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ven, man, and all things in the process of creation.

Key words: Chu Man Jeong Jiun, “diagram of about the heavenly mandate”,
Creating all Things, Endowing all things

논문투고일: 2024년 4월 15일 || 심사완료일: 2024년 5월 2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5월 27일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onfucian Studies and Eastern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